

제6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6. 3. 16(수) 14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김남효, 김성복, 김연, 김연진, 변태순
유인수, 이용철, 이해경, 전항섭, 흥현숙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4건 8작품(조각 6, 회화2)
[신규 6건, 재심 2건]
- ◆ 결 과 : 승인 5작품, 부결 3작품
- ◆ 회의록 확인 : (서명), (서명)

위원 발언 내용

<위원장>

- 금일 심사위원 10명중 10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. 본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 중 2명에게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의의가 없으시다면 공개토론 후에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1번 작품부터 보겠습니다. 회화작품입니다.

- 보통 건물이 세워지면 조각을 세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심플하고 조각이 들어 갈 공간이 여의치 않는 것으로 보니 회화작품을 잘 선택한 것 같고, 작가 경력도 좋은 것을 보니 상당히 좋은 작품 같습니다.
- 따로 공개공지가 없습니까?
- 의료원 증축 건물로 본 건물이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한 공개공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
- 병원과 작품 간에 연관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가가 이런 식의 작품을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번 작품들은 병원건물과의 연관성이 약해보입니다.
-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?
- 병원공간이어서 좀 더 따뜻한 이미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
- 입체적인 것만 보다 평면 픽셀을 보니 좀 갑갑한 느낌이 듭니다. 2번째 작품은 좀 그런 면이 덜한데 1-1작품은 좀 갑갑한 느낌이 듭니다.
-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2번 마곡지구에 설치될 작품입니다.
- 이분 작품이 도시 외관에 많이 서있지는 않아서 변화한 도심 공간에 이런 사유적인 작품이 설치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.
- 작품의 느낌을 보니 원로작가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
- 개인적으로 공공미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작가가 기존에 해왔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,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

-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작품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. 건물과 작품의 비례를 봤을 때 작품의 스케일이 좀 작은 듯 합니다. 1.7배 정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
- 저도 작품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
- 적어도 50%는 키워야할 것 같은데 그럼 비용이 늘어날 듯 합니다.
-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.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3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3작품이 있으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.
- 설치장소가 아파트인데 3-1번작품은 조명이 꺼졌을 때 위험성이 있을 듯합니다. 높이가 무릎높이고 낮은 곳에 많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성 문제에 우려가 생깁니다.
- 다른 작품들도 함께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3-2작품은 보기에 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.
- 지난번 IT컴플렉스 논란이 되었던 작가의 작품 제작형태와 비슷한 듯 합니다.
- 그 작가의 작품은 아닙니다.
- 기법은 비슷한 것 같네요.
- 3-3작품처럼 구모양의 비슷한 작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창작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
- 작가의 경력을 보니 구를 가지고 작품을 하는 작가들 중 원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

- 제가 느끼기에는 구만 가지고 툭 던져둔 느낌이 듭니다.
- 작가 약력을 보니 구 형태나 물방울 형태를 이용해 다양한 작품을 꾸준히 하고 있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. 이 작품은 파이프를 밴딩해 하나하나 용접하며 구 형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.
- 조각 작품을 잘못설치하면 더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색들의 조화가 좋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.
- 3-1 작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 몇은 아이들이 오르거나 할 수 있어 안정성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.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조도가 낮은 몇 개의 조명을 계획한 듯한데, 이는 안전성을 위해 체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
-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무릎높이라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조명의 개수를 늘려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조명을 약하게라도 작품주변에 추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4번 작품입니다. 2개의 작품인데 재심작품입니다.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인가요?
- 작품위의 카트가 없어지고 사람이 앉아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.
- 채도도 좀 낮아졌습니다.
- 이건 롯데마트에서 이런 컨셉을 제시한 듯합니다.
- 4-2번의 작품은 색감차이가 많이 나는데 4-1번 작품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.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.
- 두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합니다.

- 마트 앞에 설치될 작품이라 일부러 화려한 색상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. 4-2번의 작품은 지난 심의보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4-1번은 무어라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.
- 재심 들어온 작품 4-1번은 전체적으로 평면으로 나열시킨 느낌이 들고 위에 사람만 바뀌어서 안정성의 문제만 보완한 것 같습니다. 구상을 좀 바꿨으면 좋았을 듯 합니다. 4-2번의 작품은 보완하여 작품성이 어느 정도 살아난 느낌이 듭니다.
- 조각이라기보다는 장식물로 보이는 느낌입니다.
- 지난 번 심의 때 좀 유치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색감이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른 작품들이 다들 무채색이어서 이런 화려한 작품에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.
- 작품성을 메기기가 참 어렵습니다. 아무리 마트 앞에 설치하는 작품이어도 이정도까지의 작품은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
- 위에 사람이 빠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작품만 보면 건물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니 느낌이 달라집니다.
- 너무 작품에 장식을 한 느낌이 듭니다.
- 지난 번 1심 때도 심의에 참여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공공미술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마트 안에 디스플레이 되어있는 느낌을 받습니다. 아무리 마트 앞이라고 해도 형형색색의 색사용을 꼭 사용해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
- 그럼 다들 보셨으면 점수를 메겨주시기 바랍니다.

<채점 진행>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- 오늘은 8개 작품 중 1-1번, 3-2번과 4-1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6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